

서 평

www.kci.go.kr

한국의 영문학연구가 도달한 지평

『역사로서의 영문학』을 읽고

유 희 석

(전남대학교 영어교육과)

1. 머리말

유명숙 교수의 『역사로서의 영문학』(창비 2009)은 **한국** 영문학 연구의 성과물이다. 국내의 참고문헌이 거의 안 보이는 저서임에도 한국이라는 국적을 표나게 강조한 것은, 프랑스혁명 이후 서양 근대체제를 형성한 정신사적 궤적 전체를 일별하고 68혁명 이후 더 불확실해진 ‘탈근대’의 지평을 적극적으로 열어가는 저자의 내공이 갖는 성격을 부각하기 위해서다. 즉, 『역사로서의 영문학』(이하 『역사』로 표기)의 학문적 성취가 영미 주류 비평담론과의 정면 대면에서 획득되었음을 주목하는 뜻에서다. ‘본토’의 이론을 비판적으로 수용하려는 노력이 우리 영문학계에서도 지난 30년간 꾸준히 축적된 바, 『역사』도 그 결과물의 하나라는 것이다.

『역사』의 최종적인 방향은 물론 저자의 전공영역인 영국 낭만기의 시(론)에 찍혀 있다. 하지만 저자의 내공이 가장 치열하게 내연(內燃)하는 곳은 시(론) 자체에 관한 논의보다는 그에 도달하기 위해 선택한 예음길이다. 그 에

움길은 지난하다. 루쏘와 ‘의심의 해석학’의 대가들인 맑스·니체·프로이트에 관한 공부는 기본에 해당한다. 이들을 자기 식으로 계승한 알튀세르·푸코·데리다 등은 말할 것도 없이 레이먼드 윌리엄즈·드만·이글튼·맥간·에이브럼즈를 일정하게 섭렵한 상태에서 감성주의·자유주의·공리주의·심미주의 등, 프랑스혁명 전후의 얽히고설킨 담론들의 지도를 그려내고 있는데다, 그 파국적 혁명의 그림자가 드리운, 국가주의와 제국주의로 치달은 20세기 서양 근대의 사상사를 조망하면서 68혁명의 문화적 의의와 한계까지 짚고 있다. 한국의 영문학연구 분야에 이 정도로 폭넓은 안목을 보여준 저작이 언제 있었나 싶다.¹⁾ 영문학연구자들의 정독에 값하는 『역사』의 성취를 한마디로 말한다면 서양 근대의 상부구조를 이룬 사상사적 개념들의 엄밀한 분별 및 그런 분별에서 자연스럽게 우리나라로 치밀한 텍스트 읽기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학구의 바로 이런 면모로 인해 『역사』의 독자가 제한될 수도 있겠다. 200면이 조금 넘는 이 책은 분량과 무관한 고강도 지적 노동을 요구한다. 대략 18세기의 개혁담론에서 20세기 후반의 68혁명에 걸친, 『역사』가 추적한 서양 근대의 정신사를 구성하는 ‘개념들의 퍼즐’ 자체도 능동적인 독서가 아니고서는 감당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런 『역사』의 서평에 필자가 얼마나 적임인지는 자신하기 어렵다. 하지만 영국 낭만주의 문학에 대한 공부를 심화함으로써 영문학이라는 분과학문의 경계마저 넘어선 저서를 간만에 만난 기쁨을 굳이 감추고 싶지는 않았다.

1) 지나가는 말이지만 김종갑 교수는 “지금까지 서구의 이론을 수입하기에 급급했던 우리의 학계는 아직 참다운 의미에서 ”이론의 모험“을 감행해본 적이 없는 듯이 보인다”며 그런 모험의 훌륭한 한 예로 『역사』를 꼽은 바 있다. 김종갑, 「문학의 제도화로서의 이론」, 『안과밖』 27호(2009년 하반기) 31면. 나는 이 저작을 “이론의 모험”으로 규정하는 맥락, 즉 비평=언어의 투명, 이론=언어의 불투명이라는 도식도 또 하나의 해체대상이라고 생각하지만, 『역사』를 높게 평가하는 취지에는 얼마든지 동의할 수 있다. 『역사』에 대한 논의는 아직 미미한 실정인데, 서평으로는 『안과밖』 같은 호에 실린 유선무, 「역사의 담론 속에 다시 태어난 영문학」 참조.

2. 한국 영문학연구의 현실과 탈문학론의 공과

『역사』는 일목요연한 내용정리가 특히 어려운 저작이지만, 핵심은 무엇이, 또는 어떤 동기가 『역사』와 같은 저작을 촉발시켰는가는 물음이다. “1960년대에 잠들어 1980년대에 깨어”나(18면) 하루아침에 학계의 판도에 대해 영문모르는 영문학자가 되어버린 립 밴 윙클의 난감한 처지를 상상하면서 그렇게 잠든 시간 동안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를 거대한 ‘인식의 지도’로 그려낸 『역사』의 발상 그 자체가 생각거리다. 그런 발상은 탈문학을 선도한 이글튼(Terry Eagleton)의 입론에 관한 비판적 검토에서 구체화되는 바, 『역사』의 부제인 ‘탈문학을 넘어서’가 검토의 방향을 예시한다.

이글튼은 탈문학론의 대표주자이자 낭만기 문학의 성격을 단순화한 장본인으로서 이 저서에서 가장 빈번하게 소환되는 인물이다. 비평의 ‘법정’에 그를 세우고 행하는 『역사』의 심문은 프랑스혁명의 파국에 대한 낭만기 작가들의 극도로 복합적인 반응을 보수반동으로 규정한 프레임에 맞춰진다. 프랑스혁명의 과격화에 대한 반동을 ‘낭만적 내면화’의 문학주의적 계기로 단정하고 그 계기에서 낭만주의담론의 기원이자 근대문학의 출범을 설정하는 문제를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다. 이글튼이 도화선을 제공한 탈문학담론의 문제점을 유명숙 교수는 세 가지로 대별한다.

첫째, 프랑스혁명을 역사적 사건으로 파악하는 작업 없이—맑스주의 사관(史觀)의 통속화된 사고방식인—지지와 반동을 절대 기준으로 설정하는 혁명에 대한 이분법적 접근이 문제다. 명쾌할지는 모르나 바로 그 지지와 반동이 어떤 면에서 동전의 양면을 이루는가를 직관한 낭만기 문학을 감당키는 어렵다는 이야기다. 둘째, 모든 가치평가를 정치적인 것으로 규정하면서 정치적 정당성을 선점한 결과, 부르주와의 예술이념과 그 실질적 성취를 구분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²⁾ 이는 이글튼만의 병통이 아니지

2) 길게 논할 계제는 아니지만 그의 문학관 및 비평관을 솔직담대하게 드러낸 최근 대담집에서도 그 양자를 구분하려는 지적 의지나 노력은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Terry Eagleton and Matthew Beaumont, *The Task of the Critic: Terry Eagleton in Dialogue* (Verso, 2009),

만 프랑스혁명이란 정치혁명의 산물로서 낭만주의 문학에 대한 왜곡은 『역사』에서 우려하듯 자못 심각해질 수 있다. 셋째, 전술한 두 가지 맹점과도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서, 이른바 프랑스로론을 대표하는 알튀세르·데리다·푸코의 업적을 탈문학의 가설을 세우는 데 자의적으로 이용함으로써 68혁명이 불러일으킨 성찰을 단순화했다는 비판이다.

이 삼자(三者)의 성취는 “서양의 인식론적 틀에 안과 밖의 분리가 내장되어 있다는 통찰을 자신들의 사유에 부단히 적용한 비평적 실천”으로 요약된다(75면). 반면에 이들의 사유에 입각해 문학과 비문학, 정전과 비정전의 이분법 구도를 비판하고 나선 이글튼은 혁명에 대한 반동과 지지라는 이분법 구도로 돌아간다. 이 삼자가 바로 이런 면모를 비판하고 나섰음을 간과한 것이다. 『역사』의 표현대로 하면 “문학이라는 제도가 서양 근대담론의 어떤 가닥들을 모아 어떻게 서양 근대체제를 지탱하는 데 동원되었는지 점검하는 기초적인 작업”(15면)을 건넜던 결과다.

저자가 이 세 가지 논점에 철저한 논리적 근거를 대면서 탈문학론의 한계를 지적하고 있는 터라 전폭적으로 동의하지 못하는 관련 분야의 영문학자라 하더라도 일정한 설득력이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으리라 본다.³⁾ 물론 서구의 근대문학이 체제에 복무한 이데올로기적 기능에 대해서는 이글튼만이 아니라 탈식민담론이나 페미니즘 등에서 이미 무수한 비판적 분석을 내놓은 터이고, 나 자신도 비판의 기본 방향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다. 다만 다방면에 걸쳐 왕성한 필력을 과시하는 이글튼의 작업, 특히 『문학이론입문』 이후의 행보에 대해서는 따로 검증이 필요하겠지만 ‘리비스 이후’

특히 4·7장 참조.

3) 이글튼 이론의 여러 문제점은 『문학이론입문』의 해설(김명환, 특히 334-338면)에서도 일찌감치 지적된 바 있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실제로 윌리엄즈나 이글튼 같은 비평가들은 기성체제에 대한 급진적 비판을 시도하면서도 리비스의 ‘기술공학적·벤삼적 문명(technologico-Benthamite civilization) 및 그 대표자로서의 미국문명의 전지구적 범람에 대해서는 오히려 둔감한 편이며, 제3세계의 역사창조 능력에 대해 리비스보다 본질적으로 다른 차원의 신뢰를 품고 있는 것 같지도 않다”는 (좀더 뼈아픈) 일침이 있었다. 백낙청, 「모더니즘에 관하여」, 『민족문학과 세계문학II』(創作과批評社, 1985) p. 440.

를 청산이 아닌 창의적인 계승이라는 문제의식으로 작품에 직립하는 비평가로 그를 평가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다.⁴⁾ 이글튼의 상당수 저서를 한국의 영문학자들이 번역한 것은 그의 급진적인 자본주의 비판에 대한 매료가 크게 작용한 것이 사실인데, 선배 세대—영문학연구의 실질비평이든 아니면 비평이론이든—의 성취를 상당 부분 훼손하면서 이런 비판을 대중화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그렇다고 영문학이라는 분과학문, 그중에서도 극소수 정전에 집중하는 연구관행을 해체하는 문제의식 자체를 버려야 한다는 말은 아니다. 오히려 이전에는 문학의 대상이 되지 못한 온갖 문화현상을 비평의 영역으로 끌어들이므로써 정전주의의 폐해를 불식시킨 공로는 적극 인정할 만하다.⁵⁾ 다만 현실과 문학의 점점 지대를 넓힌 공헌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견뎌낸 작품 자체가 넓은 의미에서의 ‘문화연구’인 동시에 ‘새로운 현실’을 발견하는 인문적 창조성의 구현임을 구체적으로 해명하는 문제는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다. 그런 숙제가 부실한 것도 첨단 담론이라면 앞뒤 안 가리고 수입하기에 바빴던 우리 영문학연구의—이제는 오히려 ‘학술사업’의 끊임없는 계량화 및 수량화가 탁월함의 증거로 제시되기조차 하는—현주소를 말해주는 한 단면이라면, 유명숙 교수의 비판적 검토를 좀더 자상하게 살펴봄이 옳겠다.

알다시피 이글튼의 탈문학론은 ‘문학에서 문화연구로’로 집약된다. 한국의 국문학계, 특히 애국계몽기(1905~1910) 연구에서 이 구호 자체를 책의 제목으로 박은 저서도 적지 않고 그에 대한 점검도 시급하지만,⁶⁾ 이글튼의 입론이 한국의 영문학계에도 이렇다 할만한 비평적 ‘통관절차’ 없이 퍼지게

4) 이와 유사한 판단은 Richard Storer, *F. R. Leavis* (Routledge 2009) pp. 119-22에서도 엿볼 수 있지만, 어째서 그런가에 대한 좀더 심층적인 논의는 아직 숙제로 남아 있다.

5) 아니, 인정하는 정도가 아니라 예컨대 톰슨(E. P. Thompson, 1924-1993)의 『영국 노동자 계급의 형성』(*The Making of English Working Class*, 1963)이나 『이론의 빈곤과 그밖의 에세이들』(*The Poverty of Theory and Other Essays*, 1978) 등은 ‘위대한’ 문화연구의 계보에 속한다는 점을 좀더 숙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6) 이에 관한 논의로 특히 일독에 값하는 논문은 김홍규, 「한국 근대문학 연구와 식민주의 - 김철·황종연의 담론들에 관한 비판적 검토」, 『창작과비평』 2010년 봄호 참조.

된 추세를 일단 짚어보자.

문화연구와 친연성을 드러내는 탈문학론은 한마디로 백인 중산층 남성의 경험에 보편성을 부여한 근대문학 개념에 대한 급진적 거부로써 구성된 개념이다.⁷⁾ 유명숙 교수는 그 의의와 한계를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탈문학론의 설득력은 1960년대 반체제운동의 정치의식을 취해 제도권 문학교육이 천명하는 자율성과 보편성에 은폐된 성(차)·인종·계급의 정치성을 잃어낸 데서 나온다. 영문학이라는 제도에 안주해 성적·인종적·계급적 차별을 호도했다는 문제제기에는 반론의 여지가 없었다. 그리고 이런 문제제기에 힘입어 종전의 비평관행과 선을 긋는 문화연구, 페미니즘, 탈식민주의 같은 새로운 담론의 장이 단기간에 영문학의 지평을 바꿔놓은 것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렇게 급격한 변화의 계기가 된 탈문학론의 논거를 검증하는 작업은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최근에 와서는 비평가로서의 이글튼의 ‘알파함’을 꼬집는 글을 심심찮게 마주하게 되는데, 그보다는 탈문학론의 대표주자로서의 그의 논거들을 점검하는 작업이 시급하다. 무엇보다도 부르주와 헤게모니를 측면지원한 문학주의의 정치적 무의식을 비판하면서 역사의식을 과시한 탈문학론이 영문학이라는 제도에 문학주의가 뿌리를 내리는 과정을 역사화하지 않았음을 적시해야 한다.(34-35면)

그런데 이런 대목을 읽으면서도 새삼 되돌아보게 되는 것은, 한국의 영문학연구가 지난 반세기 동안 만만치 않은 자립적 역량을 축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껏 영미 학계와의 창의적인 긴장보다는 추수(追隨)가 승하다는 사실이다. 동시에 80년대 후반에서 90년대 후반까지 대학원을 다녔던 필자는 그 시절에 늘 의아하면서도 흥미로웠던 문제가 생각나기도 한다. 시차도 없이 밀려드는 문화연구·페미니즘·탈식민주의·신역사주의 계열의 비평가

7) 2000년대 들어 그같은 급진성에 대한 반성이 영미 학계에서도 부족 활발하지만 영문학이라는 분과학문의 경계 자체에 대한 의문을 엄밀한 작품읽기와 결합한 연구는(필자의 과문이겠지만) 극히 드문 실정인 것 같다. 그런 제한적 반성 가운데 하나로는 Rónán McDonald, *The Death of the Critic* (Continuum, 2007) 참조.

들이 한국 영문학계의 ‘영토’를 접수하는 광경 말이다. 하기는 해적판일지 언정 그들의 저서를 당시에 나도 꽤나 사들였었고 기말페이퍼의 구색을 갖추기 위해서라도 따라 읽으면서 번역도 한 바 있다.

그러나 새로운 용어나 개념어를 알아가는 지적 즐거움과 급진적 비평의 쾌도난마(快刀亂麻)를 맛보기는 했지만 작품과 그 시대에 대해 무릎을 치게 하는 통찰을 접한 기억은 많지 않았던 것 같다.⁸⁾ 대개는 미리 준비된 해석들에 텍스트를 이리저리 꿰맞춘 인상이었는데, 현실사회주의의 몰락과 동시에 맑스주의에 사망 선고가 떨어지고 난 뒤에는 68혁명의 근본적 반성을 담론화하고자 했던 여러 부류의 비평이론도 함께 밀려나기 시작했다. 1990년대 들어 한국 영문학계 안팎에서도 담론의 주도권은 ‘포스트’를 접두사로 앞세운 이론들로 넘어 갔다. ‘포스트’를 내세운 이론들을 모르면 시대에 뒤떨어진다는 강박관념마저 작용하면서 작품읽기를 중시하는 영문학연구를 순순간에 낡은 것으로 만들어버린 것이다.

그렇다고 그러한 변화를 부정적으로만 생각하는 것은 물론 단견이다. 또한 그간 속도전을 방불하는 수입 이론의 ‘공세’에 대한 비판적 성찰이 우리의 영문학계에 없었던 것도 아니다.⁹⁾ 다만 문화연구가 그러하듯이 ‘포스트 담론들’도 쫓대 있는 영문학 연구를 북돋고 서구문학의 성취를 소화하여 한국문학의 자산으로 만들고자 노력했던 우리시대의 비평적 흐름과 원만하게 만났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다. 현재 영문학계의 경우 ‘포스트콜로니얼’에

8) 자랑도 그렇다고 부끄럼도 아니지만 나는 화려한 수사와 첨단의 전문용어를 거느린 비평이론들을 접하면서 스스로를 잠에서 깨어난 립 반 윙클 같은 존재로 여기지 않았고 그 같은 이론에 기대서 작품읽기를 해본 적도 없다. 각각의 이론에서 흥미로운 통찰을 내놓는 경우 그것을 내 것으로 하려고 노력은 했을지언정—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동학의 선진 지식에서 어떤 결핍감을 느꼈을지언정—라깅이든 데리다든 무척이나 난해한 이론을 작품에 적용하는 읽기를 ‘읽으면서’ 언제나 드는 생각은 너무 단순하다는 것이었다.

9) 사회주의의 몰락을 전후한 1990년대 당시에도 수입된 급진적 이념비평에 대한 논의는 여럿 있지만 그중 일독할 만한 글은 설준규, 「이데올로기와 문학비평—루카치, 알튀세, 윌리엄즈, 이글턴을 중심으로」, 『실천문학』1990년 여름호(통권 18호), pp. 237-255 참조.

이어 ‘트랜스내셔널’이라는 영어가 떠돌면서 ‘세계화와 경계넘기’가 화두로 떠올랐지만 한국의 현실과 겹도는 이론의 구태는 여전하다. 실증 차원의 문헌연구야 우리가 열세일 수밖에 없다 해도 거기서 배울 만큼 배워서 이 땅의 삶에 구체적으로 접목하는 개방적 토론과 연구가 하나의 학풍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아직 갈 길이 멀다고 본다.¹⁰⁾

바로 그런 맥락에서도 ‘완성품’으로 나온 『역사』를 통독하고 새삼 확인한 것은, 어느 하나의 선진 이론에 안착하지 못한 대학원 시절 필자의 방향이 허송세월만은 아니었다는 사실이다. 68혁명의 산물인 다종다양한 급진적 이론에 매력을 느끼면서도 어떤 경우든 그것이 읽기로서의 비평—성찰의 개방적 지평을 담론의 틀거리로써 제한하는 모든 언술행위에 대한 비판적 읽기—자체를 대신할 수는 없으리라는 필자의 느낌에 『역사』는 구체적인 실증을 제시했다고 봤기 때문이다. 이글튼을 비롯한 영미 학자들의 입론과 씨름한 『역사』를 **한국** 영문학연구의 누적적 성과물로 규정할 나의 평가는 그런 실감에 근거한 것이다.

그렇다면 그 실증이라는 ‘물건’을 좀더 살펴보자. 이는 “영문학이라는 제도에 문학주의가 뿌리를 내리는 과정을 역사화하”는 『역사』의 발상과 직결되는 논제인데, 제대로 논하기 위해서는 프랑스혁명과 그 후과(後果)를 읽는 저자의 통찰을 들여다봐야 할 것 같다.

3. 프랑스혁명과 낭만주의

그간에 축적된 연구 자료에 비추어봐도 프랑스혁명과 낭만주의라는 화두에 관한 한 궁극적인 해석을 내놓았다고 장담하는 일은 지적 만용이 아닐까

10) 필자는 ‘영미문학연구회’(www.sesk.com)에서 내는 반년 간 학술지 『안과밖』에 관한 독후감에서도 그런 인상을 얼마간 내비친 적이 있다. 줄지 『근대 극복의 이정표들』(창비 2007)에 ‘부록’으로 실린 「‘영미연’ 10년과 학풍: 『안과밖』의 기획과 특집을 중심으로」 참조.

싶다. 그러나 궁극에 도달하려는 학문적인 노력이 없었다고 단언하는 것도 오만이겠다. 『역사』 특유의 직관적 종합이 잘 드러나는 대목은 역시 프랑스 혁명에 대한 진방위 해석이다. 그 해석은 프랑스혁명이라는 사건을 단순화한 모든 (문학)담론에 대한 비판적 항변인 동시에 우리 자신의 현재에까지도 유형·무형으로 뿌리가 닿아 있는 혁명의 유산을 새롭게 되새기려는 지적 분투다. 니체의 금언을 다시 새기는 일도 그런 분투의 일부다.

니체는 세 가지 모양의 역사가 삶에 필요하다고 말하는데, 각각 나름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본다. “기념비적”(monumental)역사는 과거의 위대한 성취에서 용기와 희망을 가질 수 있게 해주지만 전통을 이상화할 염려가 있고, “골동(骨董)학적” 역사는 나와 직접 연관된 과거의 역사를 보존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기쁨을 느끼게 해주지만 시시콜콜한 것에 매몰될 위험이 있고, “비판적” 역사는 과거의 오류를 단죄함으로써 삶의 새로운 지평을 열지만 과거에서 아무 것도 배울 것이 없다고 믿는 어리석음을 범할 수 있다고 말한다.(25면)

하지만 세 가지 역사연구의 장점을 적절히 조합하는 일이 능사는 아니며, 실제로 조합의 이상적인 방법이라는 것이 있는지조차 의문이다. 이토록 명쾌하게 역사연구 및 역사의식의 허점을 정리한 니체 자신부터가—신약성서를 두고 너무도 더러워서 장갑을 끼지 않고서는 손도 댈 수 없다고 말한 그의 단죄가 그러했듯이—“비판적” 역사의 남용이라는 혐의에서 자유로울 수 없지 않은가. 『역사』로 말하자면, 서구의 근대체제에 복무한 문학주의를 비판하는 과정에서 탈문학론자들이 바로 그 체제의 극복에 실질적인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 문학의 자산마저 폐기해버린 “비판적” 역사의 오용을 겨누고 있다. 탈문학이 저지른 “비판적” 역사의 남용을 경계하면서 낭만주의 텍스트로 표방되는 “기념비적” 역사의 재해석을 시도한다는 점에서는—급진(急進)에 제동을 거는 ‘보수주의’에 결과적으로 가까워지는—‘기우뚱한 균형’을 잡고 있다고도 말할 수 있겠다.

그렇다고 『역사』의 탈문학 비판이 편향성을 띠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결

코 간단치 않은 에움길을 돈 끝에 도달하는 낭만주의 텍스트의 재해석과 그 문학적 성취에 집중된 논술방식은 몇 가지 토론거리를 야기하는 것도 사실이다. 가령 제도로서의 영문학 형성에 (스펜서, 밀튼과 더불어) 셰익스피어만큼 영향력을 발휘한 작가도 드물다.¹¹⁾ 그 시대를 전공하는 립 밴 윙클로서의 영문학자라면 영문학이 하나의 (이데올로기적) 정전체계로 구축된 기원에 대해 어떤 견해를 내놓을까? 셰익스피어를 계승함으로써 영문학의 창조적 흐름이 19세기 들어 산문, 특히 극시(劇詩)로서의 소설장르로 옮겨갔으며 그 최대의 발현이 조지 엘리엇, 찰스 디킨즈, 콘래드, 헨리 제임스, 로런스 등으로 이어지는 ‘계보’에서 발견된다는 리비스(F. R. Leavis)의 주장에 비추면¹²⁾ 낭만주의문학의 성취는 어떻게 상대화할 수 있는가? 미국문학의 경우는 낭만주의라는 사조 자체가 논란거리가 될 수 있다. 특히 19세기 미국문학의 경우 이글튼 류의 탈문학과도 다른 방식으로 다원주의가 작동하면서 정전의 급진적인 재편이 시도되고 있는데, 때로는 양립하기조차 힘든 담론들의 영토로 구성된 다원주의 자체를 자리매기는 ‘인식의 지도’는 어떻게 그릴 수 있을까.

이런 물음들이 낭만주의 텍스트의 다시 읽기를 시도한 『역사』의 논지에 타격이 될 수는 없다. 다만 『역사』가 정전의 재해석을 통한 정전주의의 극복까지를 겨냥하는 저작임을 고려하면 낭만주의 문학의 성취를 그 전후 시대의 그것과 견주어보는 학문적 노력도 따라야 함을 환기할 따름이다. 그러므로 논점은 낭만주의의 성취에 방점을 찍고 탈문학론을 비판한 저자가 니체의 세 가지 위험을 얼마나 잘 피해갔는가 아니다. 낭만주의 시(론)에 도달하기 위해 『역사』가 채택한 에움길이 프랑스혁명이라는 미증유의 사건에 대한 역사학적 인식과도 차원이 다른 내용을 얼마나 담았는가 쟁점이다. 또한 힘겨운 에움길을 거친 낭만주의 시(론)에 대한 저자의 해석이 과연 탈문학에서 내놓은 낭만주의 비평과 질적으로 구분되는 것인가도 물어야 한다.

11) 이에 관한 논의로는 Jonathan Brody Kramnick, *Making the English Canon: Print-Capitalism and the Cultural Past, 1700-1770* (Cambridge UP, 1998) 특히 1부 참조.

12) F. R. Leavis, *English Literature in Our Time and University* (Chatto & Windus, 1969) p. 86.

프랑스혁명을 68혁명과 큰 포물선으로 잇는 『역사』의 문제의식은 “비판적” 역사의 입장을 끝까지 밀고 간 자코뱅주의가 자본주의 근대화를 비판하는 여러 갈래의 움직임—1960년대 중반 파구입신(破舊立新)을 내세운 중국 문화대혁명의 홍위병들이 가장 대표적인 후신이라고 할 수 있다—에 내장되어 있고, 이러한 “비판적” 역사의 남용에 대해 인본주의(=휴머니즘)가 철저하게 무력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비판적” 역사의 ‘기원’이랄 수 있는 프랑스혁명에 대한 『역사』의 해석으로 돌아가 보자.

1789년에 발발하여 1794년 7월 페르미도르 반동으로 막을 내리는, 연대기적 시간이 불과 5년에 불과한 프랑스혁명은 그 정치적·문화적 파장으로 인해 혁명에 값하는 역사적 의미를 획득한다. 『역사』의 분석도 혁명의 간단치 않은 여파에 맞춰진다. 즉 그 여파를 다각도로 재구성하고 파국의—보수와 급진, 예술과 정치, 혁명과 반혁명 등의 근대주의적 이분법을 만들어낸—다양한 후과를 면밀하게 추적하는 동시에 탈문학담론의 진원지인 68혁명과 연계한다. 제국주의 및 식민주의로 집약되는 서양 근대의 전개과정에 대한 68혁명의 급진적 실천도 알다시피 과격화와 고립화를 자초한 끝에 드골주의의 승리로 막을 내렸다. 프랑스혁명과 68혁명의 역사적 상동성에 주목하는 『역사』는 자코뱅이 저지른 ‘비판적 역사’의 오류를 반복한 68혁명의 아이러니가 이글튼이 주도한 탈문학담론에 내재화되는 논리를 내파하는 셈이다.

두 혁명을 서구근대 역사의 연속선상에 놓고 성찰하는 작업은 윌러스틴의 세계체제론에 힘입은 바지만, 『역사』의 관심은 혁명을 촉발한 개혁담론들의 역할과 그 한계를 당대의 맥락에 정밀하게 자리매기는 데 모아진다. 특히 그런 담론들이 각축하는 상호작용 양상을 짚으면서 각 담론의 내적 논리 자체를 혁명의 실질적인 도화선으로서 해명한 연구는 『역사』가 처음이 아닌가 싶다. 거기서 평가할 만한 타견은 혁명을 촉발시킨 18세기의 대표적인 개혁담론, 즉 자유주의와 감성주의의 합작에 관한 서술이다. 이는 『역사』의 5~6장에서 집중적으로 거론되는데, 프랑스혁명에 관한 일면적인 파악이 서구 근대의 형성은 물론 낭만주의문학의 온당한 이해에도 치명적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예시하기 때문에 좀더 소상하게 검토해볼 만하다.

『역사』에 따르면 자유주의는 중세의 신 중심 질서에서 놓여나 ‘자연상태’로 들어간 개인들로 구성되는 근대사회를 상징하는 담론을 일컫는 사상이다. ‘자연상태’의 개인에 일정한 제약을 가함으로써 근대 국가체제의 밑거름을 그린 홉스와 “개인의 자율성과 법의 권위가 공존할 수 있다고”(138면) 생각한 로크의 공방이 후자의 승리로 귀결되고 공동체에 대한 개인의 귀속보다는 그 법적 권리를 앞세우는—『로빈슨 크루소우』(*Robinson Crusoe*, 1719)의 동명 주인공에서 읽어낸(139-140면)—근대적 인간형이 자유주의의 토대가 된다는 것이다. 이 사상적 논제에 관한 『역사』의 독특한 기여는 개인들의 이기심이 야기하는 야만적 현실을 제어하면서 법치주의를 얻어낸 자유주의의 공과를 정확히 결산한 데 있다. 법집행의 불평등으로 인해 법이 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하는—그 과정에서 부르주와 국가체제에 복무하는—자유주의의 역설에 주목하는 것이다. 신분과 계급 중심의 ‘구체제’와는 양립하기 힘든 시민사회의 사상적 기초가 법 앞에서의 평등을 이론적으로 수립한 데서 형성되었다는 사실을 짚으면서도 자신을 법치주의의 예외로 설정한 부르주와지의 이념적 모순을 파고든 셈이다.

다른 한편 루소의 사유에서 발원한 감성주의는 바로 그런 모순의 극복 가능성으로 인해 자유주의의 파괴력에 비견할 만한 개혁담론으로서의 위상을 갖게 된다. 신분이나 재산, 교육 수준 등의 현실적 조건과 무관하게—적어도 이론상으로는—모든 인간의 감각적 평등과 욕망에 대한 공정을 상징하는 감성주의는 타자의 고통에 반응하는 공감 지수의 획기적 확산에 기여함으로써 특권과 배제를 기반으로 하는 구체제의 근간을 흔들었다는 것이다. 여기서 『역사』가 주목하는 바는 혁명이 발발하고 제어할 수 없는 가속도가 붙으면서 두 개혁담론의 공조가 깨진다는 사실과 그 파괴적 결과다. 18세기 개혁의 최대 성과인 시민적 법치체제를 과격 자교맹들이 공포정치를 통해 일거에 무너뜨리고, 또 이에 대한 강한 반동의 과정에서 “공동체의식에 대한 고려를 빼버린 자유주의 근대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된다.”(146면)는 것이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공리주의에 대한 저자의 평가다.

두 화두가 근대 인문교육의 일부로 정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무산시킨 것은 영문학(교육)을 대학이라는 제도 안으로 끌어들이었던 공리주의다. 이런 공리주의의 공과에 관한 한 균형 잡힌 인식이 특히 어려운 면이 있는 것 같다. 가령 『역사』가 주장하는 대로 프랑스혁명이 자유주의와 감성주의의 화학적 반응에서 분출된 일종의 씨너지 효과라면, 그리고 그런 효과가 무산되면서 리비스가 “기술공학적·벤삼적 문명”으로 표현했던 자본주의 문명이 본격화되었다면, 18세기 개혁담론으로서 가졌던 공리주의의 역사적 의의는 그야말로 ‘역사’가 되어버렸다고 진단하는 것도 가능하다. 자본주의에 복무하는 기능은 그 어느 때보다 활성화되었지만 변혁적 의의를 망실한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의미에서의 역사 말이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프랑스혁명이 파국으로 치달는 와중에서 상대적으로 타격을 덜 입은 공리주의의 계급적 반동과 자유방임주의로의 변질이야말로 서구 근대주의의 패권이 비서구세계에 관철되는 결정적 계기였다는 주장도 못할 것 없다. 혁명의 와중에서 살아남은—빅토리아조의 지배적 담론 가운데 하나였지만 결국 그 수명이 19세기로 제한되었던 복음주의와도 차원을 달리하면서 기술공학의 혁신에 이념적 토대가 된—공리주의의 전지구적 진화가 아니었던들 서구의 제국주의가 그런 ‘성공’을 거두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공리주의에 관한 이러한 인식은 18세기에서 오늘날까지의 시간대에 놓을 때 설득력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다. 프랑스혁명 당대에는 적용되기 힘든 사후적인 판단이라는 말이다. 『역사』의 주된 논점도 존 스튜어트 밀(John Stuart Mill, 1806-1873)의 극적인 자기반성이 ‘문학주의’를 낳아 낭만주의담론의 효시가 되었다는 역설의 의미다. 공리주의의 그런 ‘원죄’를 놓치지 않으면서 혁명적 시국에서 개혁담론으로서 수행한 일정한 역할도 동시에 짊어준 것이다. 60년대 반체제운동의 동력을 정치적으로 남용한 이글튼이 놓친 것도 공리주의의 바로 그같은 양면성이다. 특히 영문학을 제도화하는 과정에 공리주의가 어떤 방식으로 개입했는가에 대해서 전혀 맹목이었음을 꼬집은 것이다. 이글튼의 맹점을 답습한 신역사주의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역사』는 이렇게 말한다.

낭만기의 역사화를 기치로 내건 신역사주의 계열 낭만주의 비평도 문학 외적인 문맥, 예컨대 프랑스혁명을 분수령으로 일어나는 담론의 재배치—자유주의와 감성주의의 공조 파기, 감성주의 혁명에 대한 공리주의 반동—에 주목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혁명에 대한 반동으로 탈역사를 표방하는 “낭만적 이데올로기”가 작동하게 된다는 대전제에서 지워진 역사를 복원한다는 취지를 내세우지만, 정작 낭만주의 담론이 지워버린 공리주의를 재조명하지는 못한 것이다. 공리주의의 이분법적 사고 틀이 정치와 예술의 이항대립이라는 모양으로 낭만주의 담론의 뼈대를 이뤘고, 공리주의가 실증주의 담론으로 ‘진화’해 낭만주의 담론과 함께 19세기 분과학문체제를 이뤘음을 간과한 것은 말할 나위 없다.(186면)

공리주의에 맞선 진정 창조적인 싸움이 낭만기의 시인들의 작품에서 이뤄진다는 점은 『역사』가 거듭 강조하는 바다. 동시에 프랑스혁명을 촉발시킨 개혁담론들이 극도로 미묘하게 상호작용한 양상에 주목해야만 온갖 종류의 이분법을 유발한 반동정국의 전체 그림을 그릴 수 있다고 말한다. 『역사』의 이런 논점에 착목한다면 낭만기 문학의 해석에서 핵심은 반동성이라기보다는 혁명과 반동 사이에서의 길항이 어떤 작품을 낳았는가는 물음이다. 혁명과 반동이 서로의 옷을 바꿔 입으면서 오인 사격으로 치달은 전투의 형국이라도 해도 과언이 아닌 프랑스혁명의 끔찍한 후과를 몸으로 살아낸 낭만기 작가들의 텍스트에 대해서는 각별하고도 섬세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역사』의 전언이다. “혁명의 실패를 받아들이면서 얻어낸 절망적 현실인식을 통해서 주어진 의미체계를 ‘나’의 일부로 맞대면하는 것이 낭만적 환멸의 요체“(79면)이기 때문이다.

4. 인문적 훈련과 분별로서의 읽기

그렇다면 지난한 에움길로 우회한 끝에 도달한 낭만주의 시(론)에 대한 저자의 읽기가 과연 탈문학에서 내놓은 낭만주의 해석과 질적으로 구분되

는 통찰인가를 생각해봐야 하겠다. 『역사』의 탈문학 비판이 논리적 타당성에 더해 ‘감성적인 설득력’마저 획득하는 순간은 작품과 마주하는 때다. 물론 낭만기의 텍스트에 대한 본격적인 읽기는 『역사』 이후의 숙제로 남아 있다. 하지만 블레이크의 「런던」이나 워즈워스, 셸리 등의 시론에 대한 단편적인 해석만 봐도 탈문학론과 차원이 다른 읽기가 수행되고 있다는 평가는 가능하다. 그런 읽기는 특히 7장(“낭만주의 시론의 역사적 좌표”)에서 집중적으로 이뤄진다. 결어를 대신하여 워즈워스의 『서정담시집』 서문에 대한 논의를 간략히 거론할까 한다.

불과 6페이지에 불과하지만(212-17면), 서문에 대한 『역사』의 논점을 정리하기는 쉽지 않다. 초판(1798)의 머리글과 재판(1800)의 서문을 프랑수아혁명의 역사적 문맥으로 되돌리면서 그 문학적 파장을 오늘의 문학교육 현장에서 파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인적으로 초판 머리글에서 가장 인상 깊게 남는 대목은 “대중적 취향”의 타락상과 정신의 “야만적 마비상태”에 대한 워즈워스의 개탄이다. 『역사』도 그 점을 주목한다. 물론 그같은 개탄은 예컨대 우파 엘리프주의에 가까운 맥도널드(Dwight Macdonald, 1906-1982)의 단골메뉴이기도 하지만, 서문의 시대진단은 당대 소설장르, 가령 제인 오스틴의—고딕 소설의 형식 자체로써 고딕 소설을 해체하는—『노생거 사원』(Northanger Abbey, 1817)과 비교하면 더 흥미롭다. 고딕 소설에 탐닉한 나머지 모든 일상을 그런 소설의 프레임으로 해석하는 여주인공 캐서린 모랜드의 일탈과 궤도 수정은 인간정신의 타락상과 마비상태에 대한 소설적 일깨움의 고전적인 사례에 속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워즈워스의 ‘서문’도 19세기 소설의 성취와 연결하여 읽을 필요도 생기는데, 『역사』 특유의 문제의식은 그런 타락상을 프랑수아혁명의 후과와 연계하면서 그 후과에 대한 하나의 ‘시적 처방’으로 서문을 읽는다는 점에 있다. 그리고 그런 읽기에서도 핵심은 역시 “모든 좋은 시는 강렬한 감정의 자발적 흘러넘침이다”라는 워즈워스의 정의를 풀어내는 대목이다. 이제는 너무도 유명하고 자명한 듯 보여서 새로운 해석이 나올까 싶은 정의를 『역사』는 문장의 앞뒤 맥락과 시대적 문맥을 동시에 짚어가면서 헤아린다. 요

약하자면 저자의 역점은 “자발적인”(voluntary)/“저절로”(involuntary)라는 상반된 의미가 “spontaneous”에 공존하는 논리를 파악하면서 그렇게 충돌하는 의미의 지평을 일면화한 낭만주의담론을 해체하는 데 있다. 『역사』의 분석에 따르면 위즈워스적 ‘spontaneity’란 것은 외부에서든 내부에서든 수동적으로 주어진 영감과과는 사실상 무관한 것이다. 차라리 그것은 끊임없는 **인문적 훈련**을 통해 도달할 수 있는 사사무애(事事無碍)의 경지를 방불한다.

이렇게 정리하면 “감정” 그 자체보다는 “과거에 느낀 것 전체의 표상”인 생각이 더 중요하고, 과거에 다른 사람들이 느낀 것 전체인 “보편화된 표상들 상호간의 관계”에 자신의 생각을 놓는 것이 더 중요해진다. 그렇게 해야 “사람에게 진정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그런 경지에 이르러서야 “충동을 맹목적으로 혹은 기계적으로 따르더라도” 강렬한 느낌이 중요한 주제와 연결되어 독자의 이해력을 계몽하고 감정을 순화하는 시를 쓸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물론 당대의 상황에서 이것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님을 위즈워스도 잘 알고 있었다. “보통 이상의 유기적 감성을 소유(…)한 사람이 아니면” 혹은 “우리의 감성이 본래 풍부하다면” 같은 가정으로 주춤한걸음 뒤로 물러서는 데서 시인의 강렬한 느낌이 독자에게 도달하기까지의 과정이 험난하다는 자의식이 묻어난다.(217면)

시에 관한 위즈워스의 역사적 인식을 전제한다면 “보통 이상의 유기적 감성”조차도 본원적인 소여(所與)라기보다는 인문적 수련의 결과로 얻어지는 것에 가깝다. 문학공부의 경우 그 수련은 주어진 문학작품을 ‘제대로’ 읽는 과정 자체라고 해도 무방하다. 제대로 정착한 200년 영문학 역사의 궤적을 추적한 『역사』는 ‘립 밴 윙클의 잠’에서 깨어나기 위한 영문학자의 지적 분투와 “탈근대담론의 도처에서 조우하게 되는 근대의 유명들을 맞대면 하는”(231면) 공부로 귀결된다.

그렇다면 이러한 분투와 공부에 대한 저자의 강조가 궁극적으로 말해주는 바는 이렇게 정리할 수도 있겠다. 즉 프랑스혁명이 남긴 가장 치명적인 유산 가운데 하나인 “비판적 역사”의 오용과 이에 대한 반동으로 심화된 근

대주의로부터 탈피하는 공부도 하나의 작품에 대한 ‘완전한 반응’으로서의 비평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때의 완전한 반응은 텍스트에 대한 이론적 장악 및 실증 차원의 지식과는 다른 것이다. 그 반응이라는 것은 오히려 하나의 작품이 독자의 마음에 불러일으키는 실감 자체를 구체적인 문맥에 비추어 되짚어보는—그 과정에서 이론과 실증적 앎을 자연스럽게 포괄하는—‘분별적 읽기’(critical reading)의 훈련에 가깝다. 이런 의미에서라면 낭만기 문학을 프랑스혁명이라는 동시대 역사의 문맥에 놓으면서 그 창의적인 성취와 한계에 대해 끊임없이 물음은 던진 『역사』를 그런 훈련의 성과로 평가해도 좋을 것이다.

